

제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수상소감 2010-11-4 2:00PM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이라는 것 모르는 바 아니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고백해야 할 것은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시상식에서 수상자 심사보고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던 사람이 상을 받게 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제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제1기의 삶과 보람을 찾아간 제2의 삶을 마치고 80을 바라보는 제3의 인생을 사는 데 모델, 즉 삶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그의 국제사회에 기여한 공을 기려 국가가 포상을 제의했을 때 상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거절한 것을 본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분은 제8대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으로 10년간, 그리고 유엔의 아동, 인권 기구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90세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오가다 사다꼬입니다.

남은 생에서 제가 지금 관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활동가들의 활동여건 향상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일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의 일환으로 특히 여성의 빈곤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여성운동이지만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열악한 활동환경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활동가들은 시간제한도 없이 헌신 봉사하면서도 생활인으로서의 자신들의 문제는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지구적인 빈곤타파 캠페인에서도 여성의 빈곤문제가 뒷전에 밀리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할 측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정무역이라는 윤리적인 소비의 틀을 통해 이웃나라 빈곤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다행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사회의 다양한 부문의 상금이 따르는 시상을 또 다른 형태의 시민운동 지원금이라고 여겨서 반기고 있었던 터입니다.

작년도 심사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티은행이 사회공헌파트너로 여성의 지도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YWCA를 선택한 것은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이 있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이 평가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상금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동남아권의 가난하고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일의 종자돈으로 쓰여지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성과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운동인 YWCA와 국제적 금융기관인 시티은행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지켜보아 주심으로써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몇 사람의 영예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소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